

# 이색카페

이색카페



## 3,500평 확트인 정원에서 여유로움 즐겨볼까

### 외산 '도곡에서'

커피 시장이 커지며 소비자들의 취향도 각 영역에서 고급화, 다양화 되고 있다. 단 한잔을 마시더라도 각자 선호하는 원두며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이제 막 새롭게 문을 연 신생카페 '도곡에서'는 전 연령대를 사로잡겠다는 각오로 내부와 외부를 다른 분위기로 설계하고 음료에도 특별한 변화를 주는 등 하루하루 변화를 꾀하고 있다.

#### ◇ 사시사철 꽃피는 정원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면 잘 찾아왔다. 한적한 시골마을을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면 생각지 못한 곳이 펼쳐진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너른 화순 평야가 보이는 약 3,500평의 넓은 정원 카페 '도곡에서'다.

우람하게 솟은 나무들은 태양을 벗 삼아 푸른 그늘을 만들고, 그 밑동에는 무지개빛 해먹을 묶어 휴식을 취하게끔 해놓았다. 커다란 나무 밑에는 평상으로 재미를 더한다. 곳곳에는 구역을 나눠 2~4인용 프라이빗한 장소가 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한쪽의 그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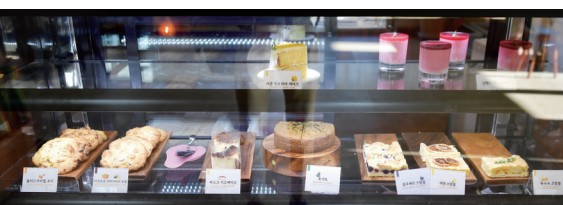
정원은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부지런하게 손질한다. 땀 흘려 일구니 밟히는 잔디가 안타까울 만도 한데 드나드는데 제약을 두지 않는다. 돛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겨도 된다.

특히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와중에 이곳은 '에스키즈존'을 외친다.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뛰어 놀기 좋게 비눗방울도 준비해뒀다.

'도곡에서'는 운영시간 내내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

깝끔한 정원...머무는 자리마다 그림

'에스키즈존' 전 연령 아우르는 메뉴  
생화와 함께 음료 제공 손님들 감동



득하다.

카페 내부는 모던하고도 클래식하게 꾸며졌다. 한 장소에서 전혀 다른 두 공간을 만나볼 수 있는 '도곡에서'는 각 취향에 맞는 곳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카페명이 단순로운 이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도곡에서 휴식', '도곡에서 가족모임', '도곡에서 2022년 여름을 보내다' 등 무궁한 가능성을 담아 낼 수 있도록 했다.

#### ◇ 풀꽃에이드 등 이색 음료 눈길

지난 5월 오픈한 신생카페인데다 접근성이 그리 좋지 못하지만 손님들이 늘고 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매 시즌 바뀌는 시그니처 메뉴 외에도 각 나잇대를 사로잡을 메뉴들이 준비하기 때문이다.

커피 메뉴를 제외한 식혜와 오미자주스, 복분자주스는 남녀노소에겐 스테디메뉴다. 이로부터 특이한 풀꽃에이드, 캐리비안에이드 등은 타 카페에서 볼 수 없는 메뉴들이라 호기심을 자극한다.

올 여름 시즌 시그니처 메뉴는 ▲썬라떼 ▲썬가또 ▲국화에이드 등이다. 한약국에서 약사를 도와 근무했던 경험을 살린 이수훈 대표(32)의 야심작이다.

'도곡에서'의 음식은 한 입 먹자마자 원재료를 듬뿍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느껴진다. 썬 고유의 단맛만 남은 쫄쫄한 옥빛 크림은 라떼와 가또에 감칠맛을 더한다. 썬향이 부드럽게 퍼진 후 코갈에 잔향을 남기지만 녹색임을 싫어하는 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카페만의 비법이다.

국화에이드는 국화만의 향기와 청량한 맛이 인상적

이다. 달콤, 씹싸름한 맛이 뒤이어 느껴지며 자꾸 자꾸 당기는 맛이다.

올 가을에는 밤, 울무 등 재철에 나는 재료를 사용해 '도곡에서'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또다시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 귀땀했다.

#### ◇ 단 한잔도 귀한 손님 모시듯

이곳이 인상적인 이유는 또 있다. 다른 카페와 달리 유난히 정성스레 음식을 '대접' 한다는 점이다. 음료와 디저트를 담은 쟁반에 생화를 꽂아 싱그러움과 멋을 더한다. 이른 새벽 광주 꽃시장에 들러 손님 상에 꽃을 꽂을 고르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는 "한잔의 커피값이 적은 돈이 아니다"며 "평소에 꽃을 받을 일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님을 위한 배려는 메뉴에서도 드러난다. 커피를 좋아하지만 잘 마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디카페인 원두, 아이들을 위한 메뉴가 개발 돼 있기 때문이다.

베이커리류도 인기다. '단짠' 매력으로 감칠맛을 자랑하는 옥수수크림볼, 상큼함이 인상적인 산딸기 무스케이크, 주말에만 주문 가능한 바나나푸딩 등이다. 꾸준히 새로운 메뉴가 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베이킹 파트를 맡고 있는 여동생 이도원 씨 덕분이다.

이 대표는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은 카페를 만들겠다"며 "재방문 할 때마다 기대 되는 카페가 돼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소중한 인연과 함께 '도곡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건 어떨까. /글=민슬기·사진=김생훈 기자

전남매일 창간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객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합니다

- |            |               |
|------------|---------------|
| (주)부성종합건설  | (주)북창건설       |
| (주)에이스종합건설 | (주)화성중기       |
| (주)씨티종합건설  | (주)대진건설기계(부품) |
| (주)부성건설    | (주)대진운수       |
| (주)에이스건설   | 글로벌팜스농업회사법인   |
| (주)보성이앤씨   | 부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   |

代表理事 朴炳泰

住所: 全羅南道 海南郡 山二面 山二路 853-1  
電話: 061) 533-5114 / 061) 534-5114

